

「농업분과위원회 기획자문회의」 결과 보고

1.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6. 3. 4.(수) 14:00~16:00, 위원회 대회의실
- (참석자) 14명(분과 1, 자문위원 5, 위원회 8)
 - (농업분과) 김상기 분과위원장
 - (자문위원) 배옥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,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, 조병옥 함안숲안마을 이장,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, 지원선 전국한살림생산자연협회 회장
 - (내부) 김호 위원장, 최봉순 사무국장, 농어업정책팀 6명
- (목적) 분과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제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논의

2. 주요 내용

- (진행상황 설명) 김호위원장 취임 이후 농업·농어촌·식품 관련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3농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발굴된 의제를 운영위에 보고하였음(2026.2.4.)

< 운영위 보고한 의제 목록 >

- ▶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소득정보체계 구축
- ▶ 농지제도 개편 방안
- ▶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강화
- ▶ 농업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
- ▶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

□ 의제 논의 내용

- 농업인 기준 설정과 정책 수요 식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기존 3농 자문회의를 TF로 전환하여 논의할 계획
- 농지제도 개편방안은 농지제도 개선 현장요구 및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조병옥 농지TF 단장 중심으로 긴급하게 논의 진행중임
 - 임차농의 친환경 인증 취소 등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 필요
-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강화는 농업분야(품목·먹거리)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합적으로 접근 필요

- 기후위기 대응시 현장 농민의 선제적 비상 체계 구축 방안 등 논의
 -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은 2030년까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하는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생산·가공·유통 체계 및 소비 문화 조성을 논의할 필요
 -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예산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
 -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은 질병차단, 생산비 절감, 가축 분뇨 처리 및 동물 복지 등을 목적으로 축산 단체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 필요
 - 접경 지역 농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법·제도 개선은 접경지역 내 영농 활동 및 권리 침해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가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음
 - 과제 검토시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음. 위원회에서 전체 연구용역을 검토하여 '정책연구심의위'에서 우선순위 심의 결정
- ⇒ 분과 의제 우선순위는 위원 위촉 이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

□ 회의체 운영 방식 설명

- (분과위 구성)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구성
- (의제 논의 방식) 공식 명칭인 '소분과' 형태로 TF나 워킹그룹을 운영하며, 분과위원이 소분과 장을 맡아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
- * 의제 발굴·논의(분과 내) → 분과위 검토·확정 → 운영위 제출 → 본회의 상정·의결

3. 향후 추진계획

□ 분과위원 위촉식 및 분과 회의 : 3.16.(월) / 19.(목) 15시 中 택

[회의 사진]

